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9(706~722)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 분석*

김선희** · 박경*** · 이해미****

Analysis on Romanization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in Foreign Countries*

Sunhee Kim** · Kyeong Park*** · Haemi Lee****

요약 :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실태를 분석하여 오류시정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지명사전, 지명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 등에 수록된 한국지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표기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 표기상의 문제점으로는 이명표기, 종속병기, 중복표기, 철자문제, 행정단위오류, 위치오류 등을 들 수 있으며, 오류형태와 방식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오류시정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오류지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민 · 관의 합의에 의한 한국지명의 영문표기 표준화 구축, 지명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홍보, 미등재 또는 미표기 지명목록 작성 및 우선적 등재노력, 지명관리 주체의 단일화와 독립성 등이 요구된다.

주요어 : 지명, 온라인 지도, 지명사전, 오류, 표준화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find the ways to correct and fix the errors in transcription by analyzing Romanization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in foreign countries. The gazetteers from many countries, place name databases, and map-providing websites are the main source of research. Common error types found in this study are variant name posting, subordinated marking, double posting, spelling errors, and location errors. In fact, transcription of geographical names exhibits more diverse forms and types. The counter measures to fix these errors are as follows, firstly, consistent efforts with regular monitoring to fix errors are essential. Secondly, the one and only standardized Romanization principle is urgent. Thirdly, prompt update and publication in case of place name and/or boundary change is necessary. Fourthly, efforts to register unregistered geographical names are necessary. Lastly,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agency solely for the management of geographical names is required.

Key Words : geographical names, online map, gazetteer, error, standardization

* 본 연구는 2008년도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nykim22@gmail.com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park97@sungshin.ac.kr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Ph. D. Candidat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dl-goal@hanmail.net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명은 그 땅의 역사와 지리를 말해준다. 이는 지명이 생활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표현이자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지명은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토착성과 보수성을 가지는 동시에 장소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자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지명 속에는 우리의 풍토와 지리, 역사 환경적 특성과 관계 등을 함의하고 있는 고유의 지리적 세계와 시대상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의 정치적, 국가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김선희, 2008, 88-89).

최근 국제질서의 재편과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지명표기 자체가 국가간의 영토분쟁과 갈등의 단초가 되거나 국제사회의 논쟁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으로 온라인상의 오류지명이 국경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명표기 및 오류문제가 단순히 언어적 실수 또는 정보의 왜곡을 넘어 다양한 역기능들을 확대, 재생산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박경 등, 2009, 14).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명표기를 주권수호와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 일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동해 및 독도 표기오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 · 관의 대응은 물론 많은 재정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지명의 표기오류 문제는 비단 동해 및 독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사전과 데이터베이스, 지도, 교과서, 웹사이트 등 다양한 관련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지명표기 오류문제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지명정보가 일단 국제적으로 오용 및 오기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수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실례로 그 동안 한국지명의 표기 및 오류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동해와 독도 문제에 집중되면서 국내외 고문헌과 고지도 상에서의 동해 및 독도 표기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성과(이찬, 1992; 임덕순, 1992; 이상태, 1995; 이기석, 1998; 2004; 양보경, 2004; 주성재, 2007; 최미선, 2008 등)와 국제표준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간의 분쟁을 넘어 국제사회의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보다 폭넓게 한국지명에 대한 표기 및 오류 실태 조사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관련한 연구성과로는 제주도의 명칭표기 변화를 다룬 연구(오일환 · 김기수, 2004), 외국 교과서상의 한국관련 지명의 왜곡과 오류실태를 분석한 연구(손용택 · 한관종, 2006), Google Earth 지도상의 한국관련 지명오류를 분석한 연구(박경 · 장은미, 2008), 인터넷상의 한국지명 오류를 분석한 연구(박경 등, 2009) 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지명의 올바른 표기와 사용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간에 야기될 수 있는 영토분쟁의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영유권 관리, 국가의 대외 신인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의 항시적인 지명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한국지명 표기를 위한 정보제공과 오류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지명(geographical name)은 장소를 인지하여 확인,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좁게는 인간생활의 터전이 되는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 붙여진 땅이름(place name)에서 넓게는 일정 범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제 지리사상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선희, 2008, 88).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명정보는 양적인 방대함 뿐만 아니라 그 함의와 어구조, 형태,

표 1. 한국지명 전수조사 대상자료 목록

유형	조사대상 자료	웹주소 및 출판사	국가
지명사전	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	三省堂(1985, 改訂版)	일본
	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2008)	미국
데이터베이스	NGA GNS(BGN)	http://earth-info.nga.mil/gns/html/index.html	미국
지도제작 및 서비스사이트	MS Virtual Earth	http://maps.live.com/	미국
	Illustrator map	http://www.illustratormaps.com/	미국
	World Atlas	http://www.worldatlas.com/	미국
	Welt Atlas	http://www.welt-atlas.de/	독일

발생원인, 명명기반 등의 다양함과 복잡성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명 조사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명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고, 그 오류형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바로잡는 일은 지명정보의 방대함에 더해 광범위한 조사대상 국가 및 부문별 자료의 국제적 정보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어려움은 더 커진다. 특히 지명표기의 오류범위는 자국의 표기원칙과 국제적 공인 여부, 해석상의 차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명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정확하게 표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명관리가 요구된다는 전제하에 표기상의 문제점을 보다 넓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및 오류 실태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자료원을 제한하여 한국관련 지명전수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지명을 제한하여 광범위한 자료원을 대상으로 지명선택조사를 병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오류의 빈도와 유형, 심각성과 확산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1차적으로 인터넷사이트와 지명사전 등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지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명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와 지명표기의 형태 및 특성을 분석하고, 발견된 오류지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국내 지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지명 표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탐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지명 전수조사 대상 자료는 크게 세계 각국의 지명정보를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지명사전 2종과 한국지명이 온라인 자료형태로 관리, 웹 서비스되고 있는 지명 데이터베이스 1종, MS Virtual Earth와 같이 지도상에서 직접 지명을 확인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지도서비스 사이트 4종 등 모두 7종을 선정하였다(표 1). 그리고 조사된 한국지명은 선행연구와 해양지명위원회의 지명분류기준(해양수산부, 2004) 등을 토대로 행정지명, 인문지명, 자연지명, 해양지명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행정지명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토를 분할 구획한 지역명으로 도, 시, 군, 읍, 면, 리 등을 포함시켰고, 인문지명에는 자연마을과 도로, 시설물, 경승지 등 인문현상과 관련한 지명을 포함하였다. 자연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으로 도서 · 하천 · 산지 · 해안 지명으로 세분하였고, 해양지명은 해상 및 해저 지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다명과 해협명 등으로 제한하였다.

2. 외국 지명사전 분석

지명사전은 단순한 지명 표제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어원과 유래, 명명기반, 변천과정, 위치와 공간특성 등 지명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어서 수록지명의 양적 제한성과 관리 및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중요한 지명정보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지명정보를 양적, 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해외지명사전은 지명정보매체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국가의 정치, 경제적 지위와 대외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지명사전에서 한국과 관련한 지명이 어느 정도 수록되어 있고, 수록된 지명의 표기와 정보가 정확한지 또한 표기오류 형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2종의 지명사전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지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은 한일간의 영유권 및 지명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가장 인접한 국가인 일본의 시각에서 우리 땅과 지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고, 미국의 「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는 국제적인 공신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세계 각국의 지명을 수록, 관리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경쟁력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판단하였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관련한 지명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가지명정보의 대외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1) 「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 분석

본 사전은 1977년 초판이 발간된 후 1998년 3판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에서 주요 해외지명사전의 하나로 꾸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183쪽의 분량에 전체 수록지명 수는 약 19,500개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한 지명은 234개(북한 197개)로 전체 지명의 1.2%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한일간의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 문화적 관계는 물론 최근 한국의 국제 경쟁력 신장 등을 비추어 볼 때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수록된 우리 지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각각 62개와 59개로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35개, 34개였으며, 강원도 27개, 제주도 10개, 행정소속이 광범위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기타 지명 7개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록 지명개체수가 많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명의 유형별 분포는 234개 지명 중에서 행정지명이 116개로 절반가량을 점유하였고, 자연지명이 96개로 약 41.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인문지명 18개, 해양지명 4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자연지명 중에는 도서지명이 4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안지명 23개, 산지지명 22개, 하천지명 7개, 평야지명 1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수록된 한국지명의 표기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의 외래어 표기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명속성에 한해 영문국제표기를 혼용하기도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이름과 관련하여 한국(Han Gug), 대한민국(Daehanmingug), 조선(Choseon) 등으로 표기되어 외래어 음독인 가타가나를 영문으로 옮겼으며, 해설에는 공통적으로 황해와 일본해에 면해 있는 조선반도의 남반부를 지칭한다고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20세기 초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명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수록지명수가 가장 많았던 행정지명의 경우 경상남도(Kyeongsang Nam Do), 경상북도(Gyeongsang Bug Do)와 같이 고유지명과 함께 방위 및 행정단위를 남(Nam), 북(Bug), 도(Do), 동(Dong), 리(Ri) 등으로 음독 표기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Busan), 대구(Daegu), 광주(Gwangju), 대전(Daejeon) 등을 직할시로 소개하는 등 행정단위 변화와 같은 지명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어서 인문지명과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문화지역권인 호남(Honam), 관동(Gwandong), 영남(Yeongnam) 등을 지역범위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 한반도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인문지명 중에는 창경궁, 창덕궁, 유성온천, 탑골공원 등과 같이 문화, 여가 관련 지명과 탄전, 댐, 고속도로, 항 등 경제 관련 지명이 주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고유명사 음독 표기를 하였고 그 중에 특히 창경궁은 일제에 의해 강등되어진 창경원(Changgyongweon)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었다.

자연지명 표기에서도 고유지명과 더불어 지명속성 부분인 산(San), 산맥(Sanmaek), 섬(Do) 열도(Yeoldo), 만(Man), 반도(Bando), 강(Gang) 등이 일본의 외래어 음독표기원칙에 따라 조선반도(Choseon Bando), 설악산(Seolag San), 태백산맥(Taebaeg Sanmaek), 한강(Han Gang), 강화만(Ganghwa

표 2.「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상의 주요 표기 및 오류 사례

유형	한글 표기	표기 및 오류 내용
이명표기	황해	Huang Hai
미표기	동해/독도	–
위치오류	백령도	황해남도
철자문제	한라산/속리산/울릉도/낙동강 등	Ha**n**ra San/So**gr**i San/Ul**r**eung Do/Na**g**dong Gang etc.
정보 미갱신	한반도/창경궁 광역시/시/군 등 행정단위	조선반도/창경원으로 설명 직할시/군/읍 등으로 설명

Man), 나로열도(Naro Yeoldo)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한라산(Ha**n**ra/Halla), 속리산(So**gr**i/Songni), 백령도(Bae**gr**yeong/Baengnyeong), 울릉도(Ul**r**eung/Ulleung), 안면도(Anm**in**/Anmyeon), 낙동강(Na**g**dong/Nakdong) 등에서와 같이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음절별로 표기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행정위치가 잘못된 사례로 백령도가 황해남도로 구분, 설명되어 있었다(표 2). 해양지명은 조선해협(Choseon Haehyeob), 제주해협(Jeju Haehyeob)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황해(Huang Hai)는 중국식 음독으로 표기하였고, 예외적으로 고유지명의 음독과 지명속성의 영문국제표기를 혼용한 사례로 대한해협(Daehan Strait)이 있었다. 이상 자연 및 해양 지명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독도'와 '동해'를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2)「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분석

2008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개정 출판한 본 사전은 국제적인 공신력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유수의 지명사전 중 하나로 총 3권 4,390쪽의 분량에 약 170,000개에 달하는 방대한 지명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한국지명은 211개(북한 85개)로 전체 지명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구미지역은 물론 가까운 러시아 8,617개(5.07%), 일본 3,747개(2.20%), 중국 3,628개(2.13%), 필리핀 1,118개(0.66%), 베트남 505개(0.30%) 등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극히 빈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경제수준, 국제적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등재 및 관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해외지명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지명사전에 수록된 한국지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211개 지명 중에서 경상도가 5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40개, 전라도 38개, 충청도 35개, 강원도 23개, 제주도 10개 순이며, 영역이 광범위하여 행정 소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기타 지명 6개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앞에서 본 일본지명사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경상도와 경기도의 지명수가 많은 것은 인구규모와 도시수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명 유형별로는 행정지명이 절대다수인 185개가 등재되어 전체의 88.5%를 점유하였고, 그 외 자연지명 19개, 해양지명 4개, 인문지명 3개였으며, 자연지명 중에는 산지지명이 8개, 도서지명이 4개, 하천지명과 해안지명이 각각 3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한국지명의 표기실태를 살펴보면 지명유형에 관계없이 고유명사 부분은 미국의 매큔-라이샤워(McCune-Reischauer) 방식의 표기를 적용하였고, 지명속성 부분은 국제영문표기 원칙을 준용하였다. 이는 한글 로마자표기법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그 출발은 1943년 미국 육군 지도창에서 발행한「Place Name Index for Korea」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명 해설에서는 각 지명의

표 3.「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상의 주요 표기 및 오류 사례

유형	한글 표기	표기 및 오류 내용
이명표기	동해	Japan, Sea of
미표기	독도/한반도 등 다수	–
철자 문제	제주도/거제도/강원/부산 등	**Ch**eju Island/**K**oje Island/ **K**angwon/**P**usan
정보 미갱신	서울/부산/인천 등 여타 시/군	City로 설명 군/읍 등으로 설명
기타	제주/강화 등	행정단위 및 섬, 만 등의 지명속성 불분명

유형별 속성까지를 고유명사로 인식하여 그 음독을 함께 수록하고 있었다. 먼저 국호와 관련하여 한국(Korea), 남한(South Korea) 등이 소개되어 있고, 해설에서 정식명칭인 대한민국의 영문표기와 음독표기(Republic of Korea, Taehan Minguk), 조선(Choson)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행정지명의 경우, 각 지명의 고유명사와 더불어 방위는 국제표기를 혼용하여 경상남도(South Kyongsang), 경상북도(North Kyongsang)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남제주(Namcheju), 북제주(Pukcheju) 등과 같이 한글 로마자 표기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설 부분에서는 그 행정지명의 단위를 도(Province), 시(City), 군(County), 읍(Town) 등으로 구분하였고, 지명속성에 관계없이 고유명사 음독표기인 경상남도(Kyongsang-namdo), 경상북도(Kyongsang-pukdo) 등을 병기하고 있었다. 행정지명 표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한글 로마자 표기의 차이와 행정단위 변화와 같은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실례로 부산(**P**usan/ Busan), 광주(**k**wangju/Gwangju) 등의 표기 차이와 서울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대구 · 울산 등이 모두 시로 표기되어 있고, 그 하위 행정단위 지명도 시는 군으로, 군은 읍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행정단위의 구분과 지명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예가 많았다(표 3). 특히 지명속성 구분이 모호한 사례로 제주(Cheju), 강화(Kanghwa) 등은 행정단위, 도서, 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였다. 이에 반해 인문지명은 지명특성상 모두 고유지명 음독 표기가 선행되었고, 해설에서는 지명속성을 반영한 국제영문표기를 병기하였는데 판문점(Panmunjom), 울진원자력발전소(Ulchin Nuclear Plant), 세종기지(King Sejong Station/King George Island) 등이다.

자연지명과 해양지명의 경우도 동일한 표기원칙이 적용되어 거제도(Koje Island, Koje-do), 지리산(Chiri Mount, Chiri san), 한강(Han River, Han-gang), 진해만(Chinhae Bay, Chinhae man), 제주해협(Cheju Strait/Cheju-haehyop) 등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자연지명 중에 산지지명은 설악산국립공원(Sorak Mountain National Park)과 같이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산지와 국립공원 명을 구분하여 수록한 예로 한라산(Halla, Mount)과 한라산국립공원(Halla Mountain National Park)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산지지명의 표기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영문표기와 비교하면 설악산국립공원(Mt. Seoraksan national park)과 같이 영문철자는 물론 고유명사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지명 중에 대한해협(Korea Strait)은 고유지명 음독 표기를 생략한 경우였으며, 동해를 일본해(Japan, Sea of)로 표기하고 해설에서 동해를 소개한 사례와 황해를 중국식 표기와 병기(Yellow Sea, Huanghai)한 사례도 발견되었고, 한일간의 주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특기할 점이었다.

3. NGA 지명 데이터베이스 분석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지명정보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명개체수를 수록,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나 지역단위의 방대한 지명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각각의 지명에는 일반적으로 고유의 유형값 · 시간값 · 공간값 등이 부여되어 있어서 지명의 분류와 변천, 분포 등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하기 쉽고, 나아가 수치지도 등과의 연동을 통해 지명정보의 다양한 편집과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온라인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세계 각국의 지명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특정국가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지명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역기능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 활용된 지명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국의 지명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관리, 서비스하여 국제적인 영향력과 정보 파급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NGA(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에서 운영중인 GEOnet Name Server의 지명 데이터베이스로 조사대상 자료 가운데 수록된 지명 개체수가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표기오류도 심각하여 일본식 표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NGA 지명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한민국 또는 남한 등으로 검색한 한국 관련 지명은 총 11만 6,894개로 확인되어 실제 지명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더욱이 이를 도별로 검색하면 경상도 41,332개, 경기도 37,871개, 충청도 35,040개, 전라도 26,311개, 강원도 22,513개, 제주도 1,727개이며, 여기에 지역별 소속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영역을 나타내는 기타지명 4,147개를 포함하면 총 16만 8,941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전체 지명수의 차이는 하나의 지명에 여러 개의 이명(variant)이 함께 수록되어 있고,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명의 경우, 하나의 지명이 과거와 현재의 행정구역에 모두 포함되어 중복 검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명의 지역별 분포에서 부산 · 대구 · 울산 등 광역시 3곳을 포함하고 있는 경상도와 서울 및 인천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명수가 많은 것은 인구규모에 따라 행정단위가 상대적으로 세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1만 6,894개의 한국 관련 지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행정지명이 77,643개로 전체 지명의 66.4%를 점유하였고, 다음으로 인문지명 19,184개(16.4%), 자연지명 19,038개(16.3%), 해양지명 1,029개(0.89%)였으며, 자연지명을 다시 세분하면 산지지명이 9,035개(47.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도서지명 6,182개(32.5%), 하천지명 2,751개(14.5%), 해안지명 1,070개(5.6%)로 나타났다.

지명의 표기 및 오류 실태를 살펴보면 나라이름과 관련하여 모두 31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표기기반에 따라 일본식 지명, 유럽식 지명, 중국식 지명, 한글 로마자 표기 지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본식 지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례로 조선, 한국 등에 대한 한자어를 일본어 로마자화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조선(Chōsen, Tchösen, Tyōsen), 한국(Kan-koku) 등이 있고, 그 외에 가야국(Kara no Kuni)의 일본식 표기도 발견되었다. 유럽식 지명 표기로는 일찍이 유럽권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졌던 고려에 대한 표기가 가장 많았으며, 불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지명 등이 이칭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Caoli, Coras, Corea, Coria, Corée 등으로 표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칭으로 알파벳 C 대신 K를 사용한 사례도 다수가 발견되었다. 중국식 표기로는 고려, 조선, 한국 등을 중국어 독음법에 기초하여 한자어 로마자화 표기법에 따른 Corai, Tchao-sien, Han-kouo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글 로마자표기는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큔-라이샤워방식의 표기법에 따라 Taehan-min' guk과 더불어 이칭으로 Dae Han Min Kuk, Daehan-Min' guk, Dai Han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지명유형별로는 일본식 소리표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일본식 외래어표기와 국제표기 등이 혼용되고 있었다. 총 19,038개의 자연지명 가운데 약 1,506개의 지명이 일본식 지명표기였는데 그 중 도서지명이 절대다수인 977개로 나타났으며, 오류형태는 shima(섬), to(도), gunto/shoto(군도), retto(열도), gan(암) 등의 일본식 접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관계부처의 지명정보 업데이트가 가장 느리게

표 4. NGA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연지명의 일본식 표기오류 사례

유형	접미어	개수	의미	유형	접미어	개수	의미
도서 지명	-to, -shima	919	섬	해안 지명	-matsu	43	말
	-gunto/Islands	26	군도		-kan	11	곳, 갑
	-retto	10	열도		-tan	19	단
	-shoto	5	군도		-kaku	20	각
	-gan, -iwa	17	암초, 암		-saki	2	기, 키
	소계	977			-suido	59	수로
산지 지명	-san	186	산		-Kutchi	1	미국해도에만 나타남
	-sammyaku	2	산맥		소계	155	
	-ho	31	봉, 봉우리	하천 지명	-ko	36	강
	-rei, -ji	10	령, 치		-sen	109	천
	소계	229			소계	145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산지지명은 모두 229개로 san(산), sammyaku(산맥), ho(봉) 등으로 표기되었고, 해안지명은 155개로 matsu(말), kan(곳, 갑), kaku (각), tan(단), saki(기) 등으로 표기되었으며, 하천지명은 145개로 ko(강), sen(천) 등으로 표기되어 일본식 표기 오류가 많았다(표 4). 자연지명과 더불어 바다와 해협 등을 표기한 해양지명에서도 Kai(해), Kaikyo(해협) 등과 같이 일본식 표기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행정지명은 수록된 전체 지명이 77,643개로 방대하여 리 단위 지명을 제외한 읍과 면 단위 이상의 지명만을 분석한 결과 약 469개의 일본식 표기 지명을 발견하였으며, 하나의 행정지명에 여러 개의 이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실례로 수록된 행정도 및 광역시 193개 중 125개를 포함하여 yu(읍), men(면), gun(군), do(도), hokudo(북도), nando(남도) 등의 일본식 외래어 표기 지명을 확인하였으며, 이명표기가 가장 많았던 전라북도의 경우, 18개가 등재되어 있었고, 특히 행정도 및 광역시의 경우 러시아어 · 중국어 · 독일어 지명 등도 대부분 수록되어 있었다. 항만, 부두, 건물, 시장 등의 인문지명에서는 jo(시장), ko(항), wan(만) 등으로 표기된 142개의 일본식 지명과 소수의 유럽식 지명이 나타나 여타 지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류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인문사상의 경우 최근에 등록된 지명이 많고 이들은 대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명유형에 따라 섬(Island), 암(Rocks), 해협(Strait), 산(Mount), 항(Harbor), 만(Bay/Gulf) 등의 국제표기가 혼용되고 있었다.

4.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 분석

최근 인터넷 환경은 특정 지역 및 국가를 넘어 범세계적인 공간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서비스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웹서비스 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전자지도들은 각각의 경 · 위도좌표를 가진 방대한 지명정보를 담고 있어서 기본도로서의 원용은 물론 웹상에서 직접 편집 및 재구성이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현재 웹서비스 지도의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그림파일 형태의 지도를 비롯하여 수치지도, PDF 형태의 지도, 확장자파일 형태의 지도 등 다양하다(박경 등, 2009, 23). 특히 이러한 전자지도들은 수록된 지명의 위치와 분포, 빈도, 변화 등을 확인하고 추적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 전달, 공유됨으로써 그 정보파

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웹사이트 상의 한국지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관리에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4개의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과 관련한 지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사이트별로 수록지명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1) MS Virtual Earth 분석

MS Virtual Earth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지도 검색사이트로 2005년 버전 1을 시작으로 2008년 버전 7이 출시되었고, Google Earth와 같이 수치지도로 서비스되고 있어서 화면상에서 직접 축소, 확대 및 이동이 가능하며, 축척에 따라 표기되는 지명 개체수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결과 한국과 관련한 지명은 총 3,973개였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각각 1,167개(29.4%), 1,075개(27.1%)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충청도 713개(17.9%), 강원도 438개(11.0%), 경기도 362개(9.1%), 제주도 199개(5.0%)였으며, 동해나 황해,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이 공간범위가 넓어 지역구분이 어려운 기타지명도 19개(0.5%)였다.

지명유형별로는 인문지명이 2,333개로 가장 많아 전체 지명의 58.7%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행정지명이 1,490개(37.5%), 자연지명 144개(3.6%), 해양지명 5개(0.1%)로 나타났으며, 자연지명을 세분하면 산지지명이 79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해안지명 42개, 하천지명 14개, 도서지명 9개로 나타났다. 본 사이트의 지역별, 유형별 지명분포에서 특기할 점은 인구규모가 크고 도시수가 많은 경기도의 지명점유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인문지명의 개체수가 월등히 많아 지명사전 및 지명 데이터베이스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도 단위부터 동, 리 단위까지를 포함하는 행정지명과는 달리 인문지명은 자연마을명, 다양한 인문현상과 관련한 지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 특히 자연마을명의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는 도시화율이 높은 경기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명분포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명 표기실태를 살펴보면 단순한 철자오류에서 위치오류, 이명표기 등까지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인문지명의 경우 서울의 Kangdom은 강동구의 잘못된 표기인 것으로 보이며, 안양 인근에서 나타나는 Saemkkumi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지명이다. 또 산지지명은 오대산(Mount Odae)과 같이 대부분 국제표기원칙에 따른 지명속성과 고유명사로 표기하고 있었으

그림 1. 중복표기(서울 아차산)

그림 2. 행정구역오류(강원 울릉도)

나 예외적으로 서울의 아차산(Mount Acha-san)에서와 같이 지명속성과 고유명사 부분이 중복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그림 1). 도서지명 중에서 울릉도의 행정소속이 강원도로 표기되어 있었고(그림 2), 구리시 · 남양주시 · 광명시 · 일산시 덕양구 등이 모두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행정단위 변화와 같은 지명정보의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오류사례로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지명 표기를 들 수 있다. 황해(Yellow Sea)와 더불어 제주도 북서쪽에서 남해안 일대까지 중국의 East China Sea가 광범위하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East China Sea의 위치는 위도 29°N, 경도 125°E 부근의 중국에 인접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East China Sea라는 지명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지도를 확대하여 들어가도 한반도와 제주도 사이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작은 만입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그림 3). 그리고 동해의 경우는 한국 동부 근해에는 East Sea라고 표기한 반면 보다 멀리 동해 중심부에는 Sea

그림 3. 위치오류 사례(East China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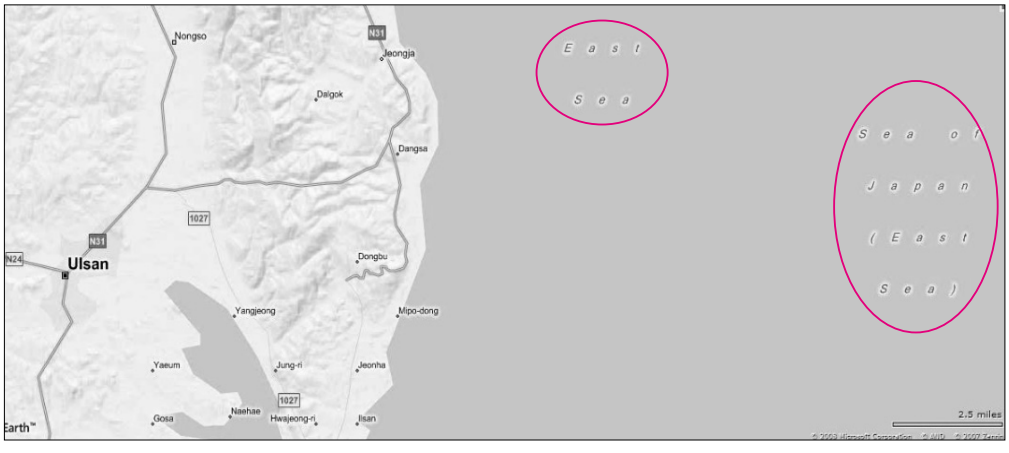

그림 4. 중복 및 종속병기 사례(East Sea와 Sea of Japan)

of Japan (East Sea)로 일본해에 종속 병기하여 국제적 논쟁의 대상임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4).

2) Illustrator map 분석

Illustratormap.com은 미국 Adobe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Illustrator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링크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벡터(vector) 또는 PDF 형태의 지도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지도는 총 14종이 검색되었는데 이들 지도의 특징은 각 지도마다 상이한 map feature와 지명 레이어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으로 주요 지명 레이어로는 'Country Name', 'National Capitals', 'Administrative Names', 'Administrative Capitals', 'Island Names', 'Ocean/Sea Names', 인구규모별로 세분화 된 'Cities', 'River Names', 'Lake Names' 등이 있다. 14종의 지도에 수록된 한국지명은 총 901개로 확인되었으며, 지도에 따라 수록 지명개체수의 편차가 컸다. 그 가운데 지명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된 몇 개의 지도를 살펴보면 먼저 수록 지명수가 총 55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 KOR-XX-394721 지도의 지역별 · 유형별 지명 표기 현황은 경상도가 217개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도 141개(24.4%), 충청도 97개(16.8%), 경기도 58개(10.1%), 강원도 46개(8.0%), 제주도 9개(1.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지명의 98.4%에 해당하는 568개 지명이 행정지명이었고, 해양지명 3개(0.5%), 자연지명 6개(1.0%)로 조사되었으며, 자연지명은 하천지명 5개와 도서지명 1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KOR-XX-782685 지도는 총 108개의 지명 중에서 경상도가 26개로 가장 많아 전체 지명의 24.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도 19개(17.6%), 경기도 18개(16.7%), 충청도 16개(14.8%), 강원도 11개(10.2%), 제주도 4개(3.7%) 순으로 나타난다. 유형별로는 행정지명이 총 91개(8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연지명이 11개(10.2%), 해양지명 6개(5.6%)로 나타났고, 자연지명은 모두 대청호(Taech'ong Lake) · 소양호(Soyang Lake) · 파로호(P'aro Lake) 등의 호수명을 포함한 하천지명으로 특히 금강 · 낙동강 등 하천지명은 하나의 지명이 두 지역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KOR-XX-782634 지도는 총 93개의 지명 중에서 경상도가 23개(24.7%), 경기도와 전라도가 각각 15개(16.1%), 충청도 13개(14%), 강원도 10개(10.8%), 제주도 3개(3.2%)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행정지명이 76개(81.7%)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지명 11개(11.8%), 해양지명 6개(6.5%)였다. 그리고 KOR-XX-124232, KOR-XX-714645, KOR-XX-824382 등의 지도는 각 지도에 수록된 지명 수와 표기 지명이 일치하는데 총 76개의 지명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21개(27.6%), 전라도 16개(21.1%), 경기도 18개(19.7%), 충청도 12개(15.8%), 강원도 8개(10.5%), 제주도 3개(3.9%) 순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76개 지명 전부가 행정지명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8개의 지도에서도 지역별 · 유형별 분포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14종의 지도상에 나타난 수록지명 개체수는 차이가 크지만 지명 표기형태는 대체로 공통점을 보였는데 먼저 베이스맵 자체가 행정구역 단위와 범위, 위치 등의 정보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산광역시는 경상

표 5. Illustrator map상의 주요 표기 및 오류 사례

유형	한글 표기	표기 및 오류 내용
이명 및 일본식 표기	영등포/상도동/화천	Eitoho/Jodo-Cho/Kasen
미표기	독도	–
위치 오류	마곡사	도시명을 마곡사로 표시
철자 문제	제주 및 제주도	**Ch**eju 및 **J**eju-Do
정보 미갱신	교동면/병곡리 울산광역시/강화도	Kyodong**up**/Pyonggok-**Tong** 경상남도/경기도에 포함

남도에, 강화도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구와 인천 등 광역시의 공간적 범위도 잘못되어 있었다. 또 인구규모에 따라 세분되어진 도시명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 아닌 지명이 많았는데 실례로 마곡사가 도시명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명표기 및 일본식 표기 사례로 영등포(Eitoho), 상도동(Jodo-Cho), 화천(Kasen) 등이 있었다(표 5).

3) World Atlas 및 Welt Atlas 분석

World Atlas와 Welt Atlas는 각각 미국과 독일의 온라인 지도서비스업체로 세계 각국의 지도를 제작하여 그림파일 형태로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지도형태인데 두 사이트 모두 한국과 관련하여 수록된 지명 개체수가 극히 적었다. 먼저 World Atlas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관련한 지도는 CIA 버전을 포함하여 총 5종으로 지도상에 수록된 한국 관련 지명은 모두 30개였다. 지역별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6개, 5개 등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21개의 지명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등의 행정지명이었으며, 해양지명과 자연지명이 각각 4개, 인문지명 1개로 나타났다. 자연지명은 금강 · 낙동강 · 한강 등 하천지명 3개와 태백산맥 등 산지지명 1개 등이었으며, 인문지명은 유일하게 판문점이 수록되어 있었다. 지명표기는 행정 및 인문지명의 경우 대개 고유지명의 한글 로마자 표기원칙을 따랐고, 자연 및 해양지명은 한글 로마자 표기의 고유지명과 국제표기의 지명속성이 혼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요 오류내용을 보면 가장 심각한 사례로 동해가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되어 일본해에 종속 병기되어 있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CIA 버전에서는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어 있었고, 독도는 Liancourt Rocks 으로 표기하고 있었다(그림 5). 이는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 명칭과 관련하여 한 나라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특히 CIA에서 제공하는 지도는 여타 사이트(학술 사이트 7개, 관광 사이트 9개, 기타 사이트 11개 등에서 원용)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지명의 전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낙동강(Nak**t**ong River), 부산(**P**usan) 등 한글 로마자 표기의 문제와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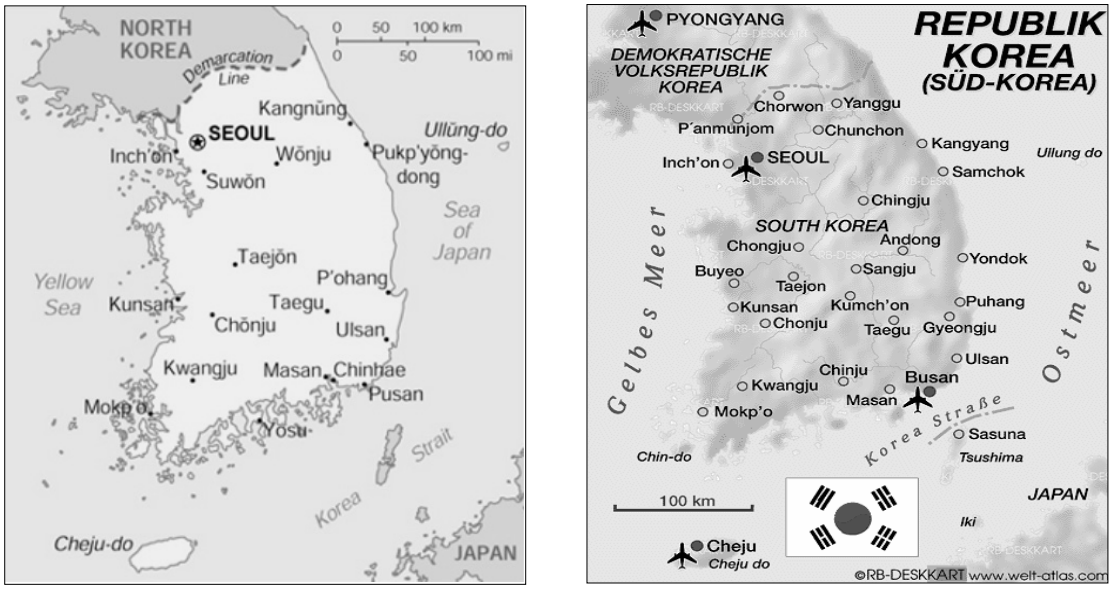

그림 5. World Atlas(CIA)와 Welt Atlas에서 제공하는 한국지도

릉(Ulung), 제주(Cheju)와 같이 행정단위와 섬 등을 구분하는 지명속성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광역시 중에 대전과 울산의 표기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Welt Atlas의 한국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모두 34개였고, 대다수 지명표기가 고유지명의 한글 로마자 표기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13개 지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와 충청도가 각각 5개의 지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유형별로는 행정지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28개였던 반면 해양지명 3개, 자연지명 2개, 인문지명 1개로 나타났다. 자연지명은 울릉도와 제주도 등 섬지명이었고, 인문지명으로는 유일하게 판문점이 수록되어 있었다. 표기실태를 보면 행정지명의 단위 구분이 전혀 없었고, 대전(**T**ae**j**on/Daejeon), 전주(**Ch**onju/Jeonju), 강릉(**K**ang**ya**ng/Gangneung), 영덕(**Y**on**d**ok/Yeongdeok) 등과 같이 한글 로마자 표기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한 철자오류도 발견되었다. 또 울릉도(Ullung do)와 제주도(Cheju do)는 고유지명으로 인식, 표기한 반면 대한해협(Korea Straße)은 지명속성을 독일어로 표기하여 혼용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동해와 황해를 그대로 독일어로 Ostmeer와 Gelbes Meer로 단독 표기하여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그림 5).

이와 더불어 Illustratormap, World Atlas, Welt Atlas 등의 지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독도 표기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소축척 지도에서 점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도서지명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해시의 작은 지역인 북평동이나 충청도의 작은 사찰인 마곡사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명칭에 대한 우선 등재 노력과 함께 정확한 지명정보 제공 및 고유지명의 한글 로마자 표기원칙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이 따라야 할 것이다.

5. 종합토의 및 오류원인 분석

이상 해외지명사전 및 지명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 등에 수록된 한국지명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표기 및 오류 실태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자료에 따라 한국지명의 수록양을 비롯하여 지역별, 유형별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지명 표기 및 오류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총 7종의 자료에 대한 한국지명 전수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수록된 지명 개체수는 하나의 지명에 다수의 이명이 함께 수록된 NGA 지명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도서비스 사이트, 지명사전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또 지도서비스 사이트 중에는 대축척의 수치지도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형태의 지도일수록 지명수록 량이 많았던 반면 그림파일 형태의 지도에서는 극히 소수의 지명만 확인할 수 있어서 지명정보의 양은 지명의 등록 및 변경, 관리와 같은 기술적 편이성과 관련이 깊었다.

한국지명의 지역적 분포 특성은 자료유형에 관계없이 대도시가 많이 분포하는 경상도의 지명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구규모가 크거나 행정단위가 세분화된 지역, 자연마을 및 부락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록지명의 개체수가 많았다. 또한 지명유형에 따른 분포 특성은 MS Virtual Earth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서 행정지명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행정단위별로 지명확인 및 관리가 용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수록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S Virtual Earth에서는 인문지명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연마을명이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지지명은 지명사전류와 지도류에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으며, 해양지명은 여타 지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는데 이는 바다와 해협 등이 공간적 범위가 넓은 반면 지명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도서비스 사이트에서는 해양지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도상에서는 해양지명의 표기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한국지명 표기에서 나타난 특징은 지명속성에 관계

없이 우리지명을 일본의 외래어 음독표기원칙과 미국의 매큔-라이샤워방식을 적용한 지명사전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료가 우리 고유지명은 한글 로마자 표기원칙을, 지명속성은 국제표기원칙을 혼용한 사례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NGA 지명 데이터베이스상의 나라이름과 Welt Atlas의 해양지명 등과 같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등의 이명표기 및 단독표기 등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지명 표기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문제로 지명정보의 미갱신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행정지명의 경우 각 지명의 행정 단위 및 소속, 위치 변경 등과 같은 지명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이명표기 및 종속병기 사례를 들 수 있다. 동해, 황해, 독도 등 다른 나라와 접해 있는 해역이나 주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양지명과 자연지명에서 일본어, 중국어 등의 이명표기와 종속적 병기가 주로 발견되었다. 셋째, 국제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명의 경우, 정치적 판단에 의해 누락되어 있거나 한국과 관련한 지명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명의 포괄적인 의미와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및 경제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풍부한 우리지명의 등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고유지명과 더불어 지명속성에 대한 표준화의 문제로 자연지명 및 해양지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문제 가운데 지명속성을 한글 로마자 표기한 경우와 국제 표기한 경우, 그리고 중복 표기한 경우 등

표 6. 한국지명의 자료별 ·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		계	지역							유형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기타	인문	행정	해양	자연
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		234	35	27	34	62	59	10	7	18	116	4	96
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		211	40	23	35	38	59	10	6	3	185	4	19
NGA GNS(BGN)		168,941	37,871	22,513	35,040	26,311	41,332	1,727	4,147	19,184	77,643	1,029	19,038
MS Virtual Earth		3,973	362	438	713	1167	1075	199	19	2,333	1,491	5	144
Illustrator map	KOR-XX-394721	577	58	46	97	141	217	9	9	·	568	3	6
	KOR-XX-782685	108	18	11	16	19	26	4	14	·	91	6	11
	KOR-XX-782634	93	15	10	13	15	23	3	14	·	76	6	11
	KOR-XX-124232* KOR-XX-714645* KOR-XX-824382*	76	15	8	12	16	21	3	1	·	76	·	·
	JPN-XX-072873* JPN-XX-952861*	29	5	2	4	5	8	2	3	·	26	2	1
	JPN-XX-533816* JPN-XX-533830* JPN-XX-533838* JPN-XX-533895* JPN-XX-533897* JPN-XX-533898*	18	2	1	2	4	4	2	3	·	15	2	1
World Atlas		30	3	2	·	5	6	1	8	1	21	4	4
Welt Atlas		34	3	4	4	5	13	2	3	1	28	3	2

주: *의 경우 지도는 다르지만 지도상에 수록된 지명 수와 표기가 같아 통계치는 하나로 표시하였음.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원인을 추적해 보면 먼저 우리지명 표기의 기저에 깔려있는 일본식 표기는 1934년 일본토지측량부에서 작성한 1: 100만 축척의 일본제국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지도는 일본어 로마자표기원칙을 채택한 최초의 지도로 당시 이 지도에는 Ryozyun(NJ51), Keizyo(NJ52), Nagasaki(NI52) 등 한국관련 지도 3도엽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후 지도제작 및 지명표기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작성된 1:150만 축척의 전국지도, 대정연간에 발행된 1:5만 대축척의 한반도 지도 등을 거쳐 1943년 미군의 Army Map Service가 제작한 Map of Korea(Chosen)가 발간되었을 때 우리나라 지명을 정리한 Place Name Index for Korea(Chosen)가 함께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총 1,194개의 한국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명표기는 일본어 로마자와 한국어 로마자가 병기되어 있어서 그 영향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의 경우는 인용되는 기본 사이트나 지도의 표기 및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원용,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지도 제작이나 서비스를 위한 AI 형태의 벡터 지도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Illustrator map에서 제공되는 지도를 구입하여 사용했을 경우, CIA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구글맵과 MS Virtual Earth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서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한국지명에 대한 영문표기 표준화와 일관된 사용노력 등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현재 국립국어원에는 '외래어표기법'에 지명에 대한 각국 언어별 표기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한글 로마자에 대한 표기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대한민국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2007a)과 영문지명사전(국토지리정보원, 2007b) 등을 비롯한 국내 지명자료와 해외에서의 표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지명 표기의 무원칙과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국가지도집과 영문지명사전에 수록된 지명표기를 비교해 보면 부산(Busan/Busan M.C), 설악산(Seoraksan N.P/Seoraksan), 동해(East Sea/Donghae), 황해(Yellow Sea/Hawanghae), 대한해협(Korea Strait/Daehanhaehyeop) 등으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지명속성과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의 표기는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지명의 영문표기 표준화에 대한 국내에서의 합의 및 홍보, 정착, 통일된 표기노력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실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항시적인 지명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확한 지명정보 제공 및 표기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해외에서의 지명표기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국가의 정치경제적 역량과 대외 인지도 및 경쟁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지명이 잘못 표기 · 사용 · 확산된다면 단순한 오류정보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하고 다양한 역기능들을 확대, 재생산한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우리지명의 올바른 표기와 오류시정 대응방안 모색은 그 유형과 원인, 생산주체 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지명사전, 지명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지도서비스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지명 표기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표기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주요 사례로는 일본식 표기를 비롯한 이명표기, 종속병기, 중복표기, 철자 문제, 행정단위 오류, 위치오류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형태와 방식에 따라 원인도 추적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올바른 한국지명 표기와 사용, 그리고 오류시정을 위해서는 첫째, 오류정도가 심각한 지명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노력과 더불어 그 개연성이 높은 지명 및 전달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우리지명의 영문표기 표준화에 대한 민관 및 부문별 관련기관의 합의를 통해

통일된 체계의 가칭 국가표준지명집 발간 및 국가지명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각국 지명위원회나 언론사, 주요 웹사이트, 국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속하고 정확한 지명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매년 갱신된 자료의 배포와 웹서비스는 물론 보다 직접적으로 편집자 또는 관리자 등과 접촉하여 정보갱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등재 또는 미표기 지명에 대한 정치외교적 등재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제사회의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해, 독도 등의 표기 선점과 더불어 주권과 영역, 역사문화적 가치와 상징성,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등재대상 지명을 목록화하고 국가 및 매체별로 등재를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명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지명관리주체의 설치와 조정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명관리의 상시체제와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한국지명 표기 및 오류 실태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 관리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으로 배포, 공유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국가 지명정보 변화에 동시다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체제의 단일화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06, 강원권 일본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국토지리정보원, 2007a, 대한민국국가지도집.

국토지리정보원, 2007b, Gazetteer of Korea(Ⅰ · Ⅱ · Ⅲ).

국토지리정보원, 2008, 2007년 국제지명표준화 활동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립해양조사원, 2006,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통용 기반 구축 연구용역보고서.

김선희, 2008, "「五萬分一地形圖」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1), 87-103.

김종혁, 2006, "한국 지명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분석과 발전 방향," 한국지도학회지, 6(1), 47-59.

김지영, 2003, 개항기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 독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해 · 독도 온라인 표기 오류시정 연구용역보고서.

동해연구회, 1995,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발표 I, II, III」, (사) 동해연구회.

동해연구회, 1997,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I, II, III」, (사) 동해연구회.

박경 · 장은미 · 김선희 · 이해미, 2009, "인터넷 지도서비스의 특성분류-한국 관련 지명오류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9(1), 13-25.

손용택 · 한관종,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5(4), 83-106.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학회지, 16(1), 89-111.

오일환 · 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형태와 명칭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학회지, 16(1), 113-122.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9-550.

이기석,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39(1), 1-12.

이상태, 1995, "역사 문헌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50, 473-485.

이진호, 1989, 대한제국 지적 및 측량사, 토지.

이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27(3), 272-277.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에서 본 동해지명," 지리학, 27(3), 268-271.

주성재, 2007, "바다 이름의 국제적 표준화 사례와 동해 표기 정당화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2(5), 745-760.

최미선, 2008, 동해 지명의 온라인 표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7,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해양수산부 해양지명위원회, 2004, 해양지명 표준화 편람.

コンサイス 外國地名事典, 改訂版, 1985, 三省堂.

Alexander, B. M., 2005, The use of national names for

international boders,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The Society for East Sea, 201-214.

Cohen, S. B.(ed.), 2008, *The Columbia Gazetteer of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Park, K. and Chang, E., 2008, A study on Japanese and oreign place names in Google Earth satellite images and GNS database o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2), 188-201.

Satow, E., Aston, W. G., and Chamberlain, B. H., 1882, *Manual of Korean Geographical and Other Proper Names Romanized*.

UN, 2007,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Technical Reference Manual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S. ARMY MAP SERVICE, 1943, *Place Name Index for KOREA(CHOSEN)*.

교신: 박경,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kpark97@sungshin.ac.kr, 전화: 02-920-7139)

Correspondence: Kyeong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eon-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e-mail: kpark97@sungshin.ac.kr, phone: +82-2-920-7139)

최초투고일 09. 09. 16
수정일 09. 09. 30
최종접수일 09. 11. 23